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25.(목) 06:00 < 4.25.(목) 석간 > 배포 2024. 4. 24.(수)

대형마트·편의점 물가안정 협조 요청

- 1차관, 유통업계 가격인상 지연 및 인상폭 최소화 당부
-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및 유통규제 개선 노력 병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4월 25일(목)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하여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관계차관회의(4.19)와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4.24) 후속조치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최근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나, 물가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추고 인상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PB상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